
부산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 일 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부산시의회 4층 이음홀

PROGRAM



부산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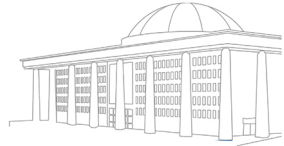
1. 목적

-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방안 마련
 - 현장을 통해서 소공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공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안 청취
 - 지역의 소공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 제공과 함께 애로사항 등 개선사항 논의

2. 개요

- 주최: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 내용
 - 일시: 2019.3.7.(목), 오후 2시
 - 장소: 부산시의회 4층 이음홀
 - 좌장: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표:
 - 1) 의류제조 : 전동헌 부산 범일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 2) 귀금속 : 장지연 부산 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임진규 부산 귀금속 보석기술협회 이사장, 강신도 부산 귀금속보석기술협회 이사
 - 3) 신발·가죽·가방 : 목혜은 부산 신발·가죽·가방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정대일 부산 신발소공인협동조합 이사장, 전성근 트래블박스 대표, 문광섭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실장

CONTENTS



부산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

1. 의류제조 분야

1

전동현 (부산 범일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2. 귀금속 분야

9

장지연 (부산 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임진규 (부산 귀금속보석기술협회 이사장)

강신도 (부산 귀금속보석기술협회 이사)

3. 신발·가죽·가방 분야

15

목혜은 (부산 신발·가죽·가방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정대일 (부산 신발소공인협동조합 이사장)

전성근 (트래블박스 대표)

문광섭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실장)

김민석

국민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먼저 오늘 진행하는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님과 부산시당 전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민주연구원은 현장을 통해서 생활밀착형 민생경제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생경제포럼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구를 시작으로 두 번째로 부산을 방문하여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소공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자 합니다.

작년 한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법) 제정,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임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고 소공인은 상대적으로 배제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소공인 모두 차별 없이 모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존의 토론회는 주로 소공인과 소상공인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 중심의 소공인과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이 업종에 따라 일정부분 차이가 남에 따라 정책 또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등을 감안하여 오늘 자리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공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소공인을 위한 정책이 소공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는 이러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현장에 계신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공인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소공인 및 관계자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소공인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7일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인사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입니다.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함께 주최하는 ‘부산 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소공인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행사를 위해 좌장을 맡아주신 전순옥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공인은 산업의 뿌리이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입니다. 축적된 숙련기술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제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고, 적은 인원과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까닭에 기술을 비롯해 유연함과 신속함 또한 갖추고 있는 전천후 자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 소공인은 오랜 기간 동안 부산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실제로 부산 전체 제조업의 80%를 소공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중심에 소공인이 있다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가 간의 기술 평준화, 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의 비상 등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와 수익성의 악화라는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은 상위 기업 납품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제조기업들에, 나아가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소공인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음에도, 소공인의 위상이나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비해

소공인 대상 지원 방안 등은 전무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경시·배제돼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생계형 소상공인에 집중돼왔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소공인 특수성을 보존·육성하는 정책은 부족했고, 이는 소공인들이 보유한 숙련 기술 단절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시행(2015)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정부 지원체계 마련 등을 중심으로 소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그중 부산의 경우 지난 2017년에 범일동 의류제조집적지구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18년 기준 전국 16개 지구)됐고, 가죽신발 및 귀금속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범천동 일대의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세 곳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범일 의류제조 센터·범천 귀금속 센터·범천 가죽가방신발 센터)가 설치되는 등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환경·제도가 정비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소공인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갈 길도 멀고 당면 과제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교류와 토론, 방안 모색을 통해 제조업의 모세혈관 기능을 충실히 실현하고 계신 소공인분들 덕분에 무척 든든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우리 부산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터주고, 부산 경제를 되살리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부산 경제를 이끌어왔고 또 이끌어갈 빛나는 주역들의 회합인 동시에,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한 도약판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관련 정책 방안에 생생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바쁘실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참석자 여러분의 무한한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

인사말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산지역 소공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의 길동무 전순옥입니다.

금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부산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활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과 우리 부산광역시당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신 우리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님과 실무진, 특별히 부산광역시당 전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직자들의 전폭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해주신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구의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대책과 경제 정책을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소공인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기 위해 이 곳 부산을 비롯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신발, 가죽, 가방, 귀금속, 의류봉제 등의 소공인들이 많이 밀집해있고, 3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의 80% 가량이 소공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 지역경제의 뿌리가 바로 우리 소공인들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부산지역 맞춤형 소공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소공인 여러분이 기탄없이 의견들을 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잘 받들고자 합니다.

소공인 여러분, 작년 12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동시에 정부 역사상 최초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당당한 경제주체로 인정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립, 공영홈쇼핑 소상공인 특화방송 코너 신설, 자영업 수출 컨소시엄, 소상공인 자영업 전용상품권 발행,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 가맹점 본사간의 분쟁조정협의회 광역지자체 단위 설치, 노란우산 공제 확대, 1인 자영업자 4대보험 지원 기반 마련,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연구기관 설립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입안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당과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진정한 소상공인의 대변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산적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손잡고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순옥**

1

의류제조 분야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개

□ 집적지구 개요

- 명 칭 : 범일동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 위 치 : 동구 범일동
 - 면 적 : 약 3.54km²(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 의류제조업 현황 : 집적지 소공인 524개 업체, 1,007명
 - 사업체수 : 부산시 전체 29.2% / 종사자수 : 부산시 전체 18.6%
- ※ 부산광역시 사업체조사, 부산시 동구청 사업체기초통계, 2017

□ 소공인 지원 계획

- 의류제조 소공인 및 예비소공인 유형

| 구분 | 소공인 | | | 예비소공인 | |
|-----|--|--|--|--|---|
| 유형 | A type | B type | C type | D type | E type |
| 키워드 | (청년창업) | (자체브랜드) | (단순임가공) | (창업) | (취업) |
| 현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부재 - 생산공장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력 부재 - 판로부재 - 브랜딩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감부족 - 신규인력부재 - 기술단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부족 - 관련지식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술부족 - 취업희망업체 정보부족 |

※ 소공인 및 예비소공인의 유형은 6년간(2013년 ~ 2018년) 센터 운영인력의 소공인 업체 방문 및 상담을 통해 분석한 자료로, 소공인의 단계적 지원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하지 않은 소공인 및 예비소공인 또한 현안 및 특징을 분석하여 센터 진단 기준을 통해 지원 중에 있음

- 소공인 유형 별 우수소공인 및 기술전수를 위한 숙련기술인 발굴
- 증장기 상품 판로확보 및 소공인 간 협업 환경 지원

□ 세부사업 계획

| | 세부사업 | 실시기간 | 사업목표 | 내용 |
|------------------|--------------------------|-------------|-------------|------------------------------------|
| (필수) 교육 사업 | 경영실무 | 19.04~19.05 | 15명, 45H 교육 | 경영관련 전문가 이론교육 |
| | PC를 활용한 일러스트&포토샵 | 19.05~19.08 | 15명, 90H 교육 | PC를 활용한 패션일러스트 및 포토샵 활용기술교육 |
| | 실무의복패턴제작실습 | 19.07~19.09 | 15명, 90H 교육 | 소공인 기술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패턴 기술교육 |
| | 3D프린트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기초) | 19.10~19.12 | 15명, 90H 교육 |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 프린트 활용 교육 |
| | 봉제장비를 활용한 의복제작실습 | 19.10~19.12 | 15명, 90H 교육 | 소공인 기술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봉제 기술교육 |
| 자율 | 컨설팅지원 | 19.03~19.12 | 15개업체 지원 |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한 비즈니스 역량강화 |
| | 전시참여지원 | 19.03~19.12 | 15개업체 지원 | 국내외 전시참여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신규판로지원 |
| | 시제품제작지원 | 19.03~19.12 | 15개업체 지원 | 시제품 개발비 지원을 통한 디자이너 및 소공인 협업지원 |
| | 제조인프라지원 | 19.03~19.12 | 15개업체 지원 | 공동제조장비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및 일감지원 |
| 협업 | 공동판매지원 | 19.03~19.12 | 15개업체 지원 | 신규판로확보를 위한 공동판매행사 기획 및 지원 |

○ 교육사업 추진계획

※ 설문조사 추진

- 대 상 : 2017 ~ 2018년 교육생 125명 / 응답자 78명 (62.4%)

- 기 간 : 2019. 01. 21.(월) ~ 02.01.(금)

- 방 법 : 9개과정 및 기타 희망과정 수요조사 온라인 설문

- 결 과 : 일러스트포토샵 과정 외 4개과정(이론1, 실습4) 개설추진

- 이론교육 : 세분화된 경영관련 전문가 교육을 통한 자립경영 지원
- 실습교육 : 의류제작에 필요한 패턴 및 봉제, PC를 활용한 패션관련 기술교육과
액세서리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트 활용기술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향상

※ 필수사업 : 실무의복패턴제작실습 (분야 : 명문소공인)

○ 컨설팅지원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전문 컨설턴트 및 멘토단의 경영진단을 통한 비즈니스 역량강화
- 내 용 :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
- 목 표 : 15개업체 전문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전시참여지원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판로개척 및 국내외 전시참여지원을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
- 내 용 : 국내외 패션의류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으로 패션시장 트렌드 분석 및 바이어를 통한 신규 판로개척 지원
- 목 표 : 15개업체 전시참여 지원

※ 단체전시 참가계획 : 일본, 프로젝트도쿄 2019 (9월 경)

○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시제품 개발비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 내 용 : 시제품 개발비 지원을 통한 신상품 개발, 디자이너 및 의류제조업체의 협업유도
- 목 표 : 15개업체 전시참여 지원

○ 제조인프라지원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공동작업장을 활용한 디자이너 협업유도 및 그에 따른 신규거래선 확보
- 내 용 : 공동작업장 내 신규장비를 임차 구축하여 의류제조업체 및 디자이너 협업 유도
- 목 표 : 15개업체 전시참여 지원

○ 공동판매지원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공동판매를 통한 패션의류 소공인 매출액 향상지원
- 내 용 : 부산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소공인이 제작한 패션상품의 판매행사 추진과 그에 따른 신규판로확보 및 매출액 향상 지원
- 목 표 : 15개업체 전시참여 지원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및 C&L 본사 위탁판매 지원 중

□ 센터홍보 및 기타추진 계획

- 범일 의류제조 센터 월간 간행물 발간 추진 (4월 ~ 12월) : 우수소공인 및 우수 사례 홍보를 통한 사업참여율 제고
-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동구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사업설명회, 교육 사업 및 세부사업 홍보 추진
- 세부사업 참여소공인 사후관리
- (교육사업) 교육과정 만족도 및 희망 과정 수요조사 추진
- (세부사업) 분기별 기업운영 실태분석 면담을 통해 경영 애로사항 점검,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 우수소공인 성장 유도

정책 건의 사항

□ 의류제조 센터(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의 활성화 및 소공인 지원정책 수립)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필요

- 소공인법에 의거 범일동은 2017년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어 2019년 6월 18일 준공일 이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인프라 건물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의 매출향상을 목표로 상품기획 및 생산 등 전반적인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전체예산 국비 15억, 시비 10억 중 토지(건물)매입 및 증축과 관련하여 국비 15억 시비 7억이 투입되었고, 장비구축 및 운영비로 시비 3억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
- 2020년부터 부산시는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건물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매년 2억의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중
- 인프라 건물을 활용하여 범일동 의류제조 소공인의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에 대해 주력을 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범일동 의류제조 소공인으로 국한되어 유관기관의 사업유치가 사실 상 불가능
- 따라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세부사업 운영 및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국비지원이 절실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 범일동의 의류제조 소공인은 국가기관, 공기업, 공사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된 입찰에 참가할 만한 행정 능력과 실적 등이 현저히 부족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공인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근무복을 짧은 납품기한으로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유는 기관들의 입찰에 참가한 특정업체로부터 재하청을 통해 일감을 받고 있음
- 국가계약법(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 명시하고 있고, 특히, 3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성능, 품질 등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예외사항을 두고 있음
- 따라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제안

2

귀금속 분야



귀금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개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개

- 주관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 개 소 : 2015년 6월
- 집 적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 지원대상 : 집적지 귀금속가공 소공인
- 주요사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 소공인공동인프라운영사업
- 사업내용
 - 기술 및 경영교육, 공동판매지원, 전시회참가지원, 공동카탈로그제작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온라인유통플랫폼 입점지원, 공동인프라(장비실, 회의실) 운영
- 추진방법
 - 부산진구 10인 미만의 귀금속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공인 역량 향상 및 우수 기술 발굴과 보유기술의 사업화,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세부 사업 진행
- 집적지 소공인 규모
 - 부산진구 범천동소재 귀금속 제조업체로 약 150개사
- 주요업무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공인공동인프라사업 설치운영 사업수행, 유관기관 및 정부 소공인 지원사업 정보제공, 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집적지 발전방 마련 및 운영, 일자리 정보제공등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설현황

| 구 분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소공인공동인프라 |
|-------|-------------------------|--------------------------|
| 주 소 지 | 부산진구 범일로 160, 중앙빌딩 1층 | 부산시 부산진구 골드테마길 34, 3층 |
| 운영인력 | 2명(센터장 1, 매니저 1) | 1명 |
| 기 능 | 귀금속 소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 귀금속 소공인 공동장비활용 지원 |
| 규 모 | 231㎡(사무실 66㎡, 교육장 165㎡) | 125.6㎡ |
| 주요시설 | 사무공간, 교육장 | 공동장비실(3D 프린터실, 촬영스튜디오 등) |
| 조성시기 | 2015. 6월 | 2015. 10월 |

□ 부산귀금속 제조 및 집적지 현황

○ 집적지 일반현황

- 서울 이남의 최대 귀금속 시장, 부산귀금속 제조업체의 약 85%, 유통업체의 약 70%가 밀집
- 제조업체 약 250개사(사업자등록업체 150개사, 미등록 100개사), 도소매업체 330개사
- 제조업체 금거래업체는 년 매출은 평균 약 500억, 제조업체는 평균약 5억정도 이나 실질적인 매출신고는 약 2,000만원정도에 그침

○ 우수한 기술적 잠재력 보유한 소공인

- 귀금속 선진국인 일본에 취업한 세공 기술자의 70%가 부산지역 기술자였으며, 현재는 부산으로 다시 돌아와 세공업에 재취업 및 창업한 인력이 다수 존재하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귀금속 세공인 집적지역
- 제조 각 분야의 전문화된 기술력을 보유

○ 내외적 발전저해 요소

- 내적 요소 : 소공인간 불신으로 인한 소통 부재, 주변 변화를 받아 들이고자하는 개혁적 자세 결여, 전통의 장점을 승계 및 발전시키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결여,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부족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
- 외적 요소 : BTC, BTB 음성적 유통 및 거래 만연, 제조·도매·소매가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부족

□ 부산귀금속 정책 건의

○ 양성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구축

- 소비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래방법(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혜택은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온누리상품권 : 소비자와 업체가 서로 실질적인 혜택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자발적인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이 필요
- BTC에서 시작된 거래 양성화를 통해, BTB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등 거래 양성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고용인력 양성화(상시근로자) 및 근무환경의 변화도 기대

○ 소공인 맞춤형 고용지원 확대

- 현재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에서 소공인의 열악한 환경으로 사업에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취업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여 소공인들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기술, 환경 적응 기간은 평균 3년 정도 소요.
- 고용지원기간과 범위 확대를 통해 이직을 방지하여 소공인의 기술력을 전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귀금속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 정책 구축

- “금”은 다른 재화력 재료와 달리 재생률이 95%에 달하고, 특히 부산귀금속 제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순금과 18K제품만 생산. 제품의 재생산시 재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제품을 생산
- 하지만, 금 재료를 살때부터 세금을 부가하고, 제품을 재생산할때마다 세금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제조업체들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
- 해외 경우, 금재료에 대한 세금이 미부가.
- 금 재료 및 제조에 대한 세금에 대한 완화정책이 필요.

○ 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전시장 구축

- 주얼리 제품의 경우 대형유통망을 통해 판매시 유통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윤이 맞지 않아 대형 유통망을 통한 거래를 꺼려함

- 대형유통망에 입점되었다 하더라도, 주얼리가 고가의 제품으로 판매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유명브랜드 못지않은 고가제품이 되나, 유명브랜드가 아닌 고가의 제품(주얼리)은 소비자 구매로 이어지지 않음
- 1인 기업이 대부분인 소공인이 신규판로개척까지 하기에는 역부족
- 도소매상은 팔기 쉽고 이윤이 큰 모조품을 소비자에게 판매유도를 하여, 소공인들에게 모조품을 제작주문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판로가 없는 소공인들은 모조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시회, 공동판매등을 통한 판매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꾸준히 신규 판로를 개척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공동전시장 전시를 통해 BTC뿐만 아니라 BTB 판로개척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및 기술제품을 개발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산업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3

신발·가죽·가방 분야



신발·가죽·가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개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개

- 주관기관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사업
- 개소 : 2015년 6월 1일
- 집적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인근
- 지원대상 : 집적지 신발·가죽·가방 소공인
- 주요사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 소공인공동인프라운영사업
- 사업내용 : 기술 및 경영교육, 기술 및 경영 컨설팅, 수출판로개척, 공동판매지원, 전시회참가지원, 작업환경개선사업, 시제품 및 홍보물 제작지원, 공동인프라(전시 홍보관, 장비실, 세미나실, 디자인개발실, 촬영스튜디오) 운영
- 추진방법 : 부산진구 10인 미만의 가죽·가방·신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공인 역량 향상 및 우수기술 발굴과 보유기술의 사업화, 시장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세부사업 진행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연혁
 - '19. 2월 : '19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 사업 협약
 - '19. 1월 : '18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 성과평가 결과 A등급
 - '18. 10월 : 소공인과 예비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계약체결 18건
 - '18. 3월 : '18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 사업 협약
 - '17. 10월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소공인 제품 판매전 진행 판매금의 일부를 지역 불우이웃 돕기함
 - '17. 3월 : '17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 사업 협약

- ‘16. 12월 : 2016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과확산 워크숍
센터 우수사례 경연대회 ‘대상’ 수상
- ‘16. 8월 : 소공인 협업을 통한 공동브랜드 판매장 ‘슈플레이스 1호점’ 개점
- ‘16. 1월 : 부산신발소공인협동조합 설립
‘16년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 사업 협약
- ‘15. 12월 :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공동 전시홍보관/공동 Biz지원관)
부산 신발 소공인 최초의 공동브랜드 ‘SHOE PLACE’ 개발
- ‘15. 6월 : 부산 범천 신발·가죽·가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
- ‘15. 5월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선정(중소기업
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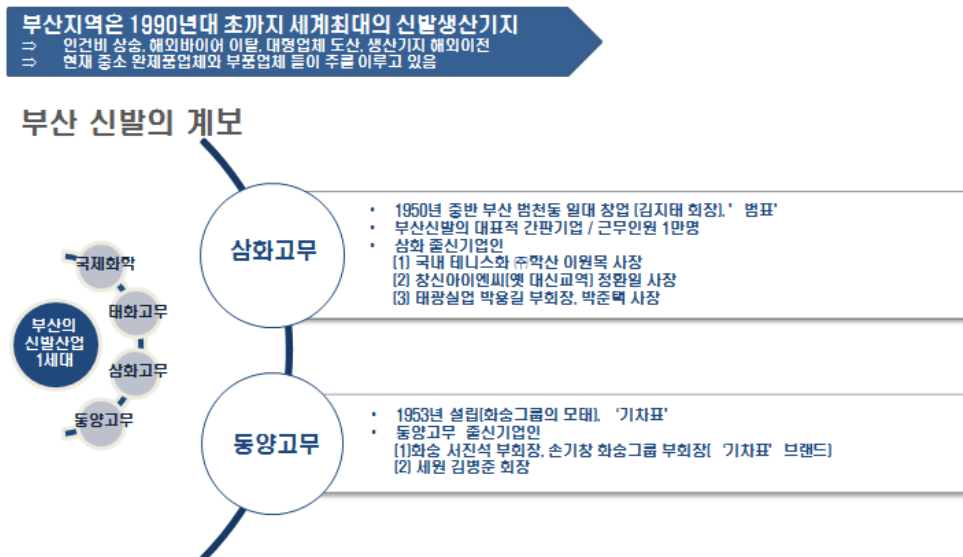
□ 집적지 일반현황

| | |
|-------|--|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
| 업종/코드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C15)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
| 집적지도 | |

* 부산진구 내 범천동 인근지역 가야동, 개금동, 당감동, 범천동 부암동, 부전동, 연지동, 전포동 포함

가. 소공인 집적지 형성 배경 및 연혁

- 부산진구는 부산 신발산업의 발상지로 1950년대부터 제조업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었음



[그림 1] 범천동 소공인 집적지 형성배경 도식화

- 부산신발산업의 1세대인 삼화고무와 동양고무의 설립지역으로서, 삼화고무는 1950년 중반 부산 범천동 일대에서 김지태회장이 창업하였으며, '범표'신발로서 그 당시 근무인원이 1만명에 달하는 대기업이었음
- 현재 화승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동양고무 역시 1953년 범천동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기차표' 브랜드로 당시의 신발산업을 이끌었던 선두기업임
- 신발산업은 부산지역 전통제조업의 원동력이며 부산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오랜 기간 동안의 기술 노화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성장이 멈추고 열악한 경영 환경에서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나. 집적지 특성

1) 행정구역적 특성

- 2019년 2월 현재, 범천동 및 인근지역 가야동, 개금동, 당감동, 범전동, 부암동, 부전동, 연지동, 전포동을 비롯한 지원대상 소공인 업체수는 최소 149개 이상임 (18년 전수조사결과 149업체 중 86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공인이며, 62업체는 사업자등록증 공개를 거부하거나 사업자 미등록업체임)

2) 소공인 규모·특성

- 집적지의 소공인은 주로 구두류 및 기타 신발 제조, 신발부분품 및 재단제품 제조,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로 나뉘어 구성
-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성장이 멈추고 열악한 경영 환경에서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음
- 집적지 내 소공인의 74% 이상이 상시근로자 1~4인 이내이며,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비수기와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난으로 상시근로자보다는 가족 또는 4대 보험 미지급의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음
- 기술자 및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수기 고급기술자의 확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나아가 신발 제조업의 기술전수자를 찾기 힘들어짐
- 집적지 제조업체의 협업화 부족으로 동반성장 기반이 약하며, 소공인 간 경쟁을 부추기는 딜러의 횡포로 경영난 악화

□ 집적지 당면환경

1) 신발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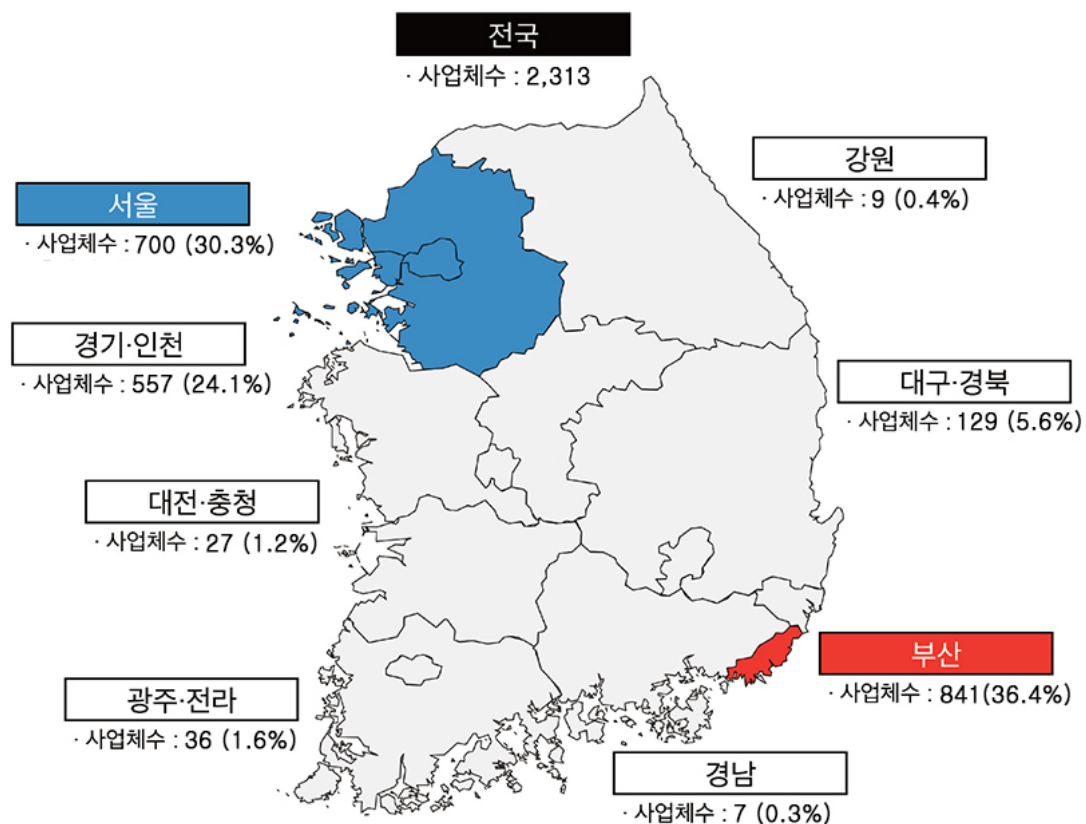
- 2017년 기준, 전국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사업체 수는 2,785개이며, 종사자 수는 19,626명으로 집계됨

○ 부산의 신발 제조업체는 1,050개로 전국의 37.7%이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총 841개로 전국의 36.4%를 차지함

○ 10인 미만의 소규모 신발 제조업체는 부산 > 서울 > 경기·인천 > 대구·경북 순으로 많음

| 종사자 규모 | 전국 | | 부산 | |
|----------|----------|----------|----------|----------|
| 항 목 | 사업체 수(개) | 종사자 수(명) | 사업체 수(개) | 종사자 수(명) |
| 합 계 | 2,785 | 19,626 | 1,050 | 8,987 |
| 1~4명 | 1,548 | 3,414 | 502 | 1,242 |
| 5~9명 | 765 | 5,247 | 339 | 2,357 |
| 10~19명 | 301 | 3,914 | 122 | 1,522 |
| 20~49명 | 132 | 3,829 | 64 | 1,988 |
| 50~99명 | 33 | 2,149 | 20 | 1,328 |
| 100~299명 | 6 | 1,073 | 3 | 550 |

*출처 : 통계청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17)



*출처 : 통계청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10인 미만(2017)

2) 국내 신발산업 구조적 한계점에 직면

- 기업의 영세성 및 경영성과 부진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어 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가 취약,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확대
- 디자인 개발능력 미흡, 국내 신발 브랜드 인지도 취약, 글로벌 브랜드 부재 등의 문제로 글로벌 시장 확산에 한계로 작용
-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취업 기피, 단순생산 및 기능 인력의 고령화, 높은 이직률 등과 같은 인력부문의 문제점 발생
- 설비투자가 취약하여 설비가 노후화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3)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 신발 소공인 생산 현장은 기술숙련공뿐 아니라 단순 노동자들도 많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 산업 현장
- 증가하는 재료비,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의 홍수, 중간 판매상의 횡포 등으로 소공인에게 심각한 경영난
- 인력확보를 위한 인건비의 지원이 항상 필요했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수의 소공인이 제품생산에 애로를 겪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

□ 소공인 건의사항 1

건의자 : 대광제화 대표 정 대 일

- 건의사항 1.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최저임금 산정시 차등적용이 필요함
 - 정년퇴직이지만 근로 욕구가 있는 구직자의 경우 사업주와의 상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합의하에 임금 조정 또는 사업장의 수준에 맞는 임금 조정이 필요함
 - 단순근로자의 급여상승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급여를 상승하여야 함
 - 최저임금 산정시 기술직에는 숙련도별, 연령대별 차등이 필요함
- 건의사항 2. 신발 집적지 범천동에 ‘범천지구신발특화거리’ 조성
 - 부산 신발 제조 사업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범천동이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 점점 신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음
 - 집적지가 가지고 있는 거리적 특성과 현대 젊은이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스토리를 가진 거리로 부산의 제조 산업 중심지도 다시 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범천지구신발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집적지 특화와 소공인제품의 판로확보, 신규기술자 양성 등이 쉬워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소공인 건의사항 2

건의자 : 트래블박스 대표 전 성 근

○ 건의사항 3. 소공인특화자금대출 규정완화 필요

- 소공인특화자금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까다로워서 탈락률이 높음
-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금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완화가 필요함

○ 건의사항 4. 신발 소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매장 설립

- 집적지 신발 소공인들은 해외 제품과 국내 동업종 동제품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판로개척이 어려우며 홍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어있지 않는 것 현실임
- 제조 후 납품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현재 영세 소공인들의 경우 브랜드를 개발하고,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함
-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부산 범천동 신발소공인의 공동 판매장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는 소공인들이 판매장 운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신발을 생산하여 판매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직접적인 소비자 연결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소공인 건의사항 3

건의자 : 대한민국신발피혁연구원 실장 문 광 섭

수제맞춤형 건강신발 R&D사업 관련 정책 건의

